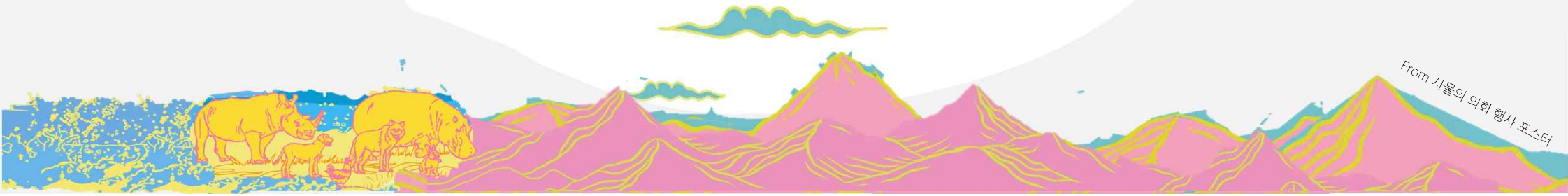
생태전환대학 2026년 겨울 강좌 “생태×지역 × 정치 씨앗 심기”

사물의 의회

어떻게 현실정치가 되나?

김지연, 2026. 01. 16



From 사물의 의회 행사 포스터

강연자 소개, 김지연

- 고려대학교에서 과학사회학 박사학위, 고려대 과학기술학연구소 연구교수
- 2025년 한국 최초 〈사물의 의회(Parliament of Things)〉 조직위원회 위원
- 저서로 《과학문화, 난쟁이와 거인의 노래(2025 세종도서)》, 《AI와 노동, 관계론적 접근》 등
- 논문으로 〈시민과학 기반 AI 거버넌스에 대하여〉, 〈인공지능(AI)의 윤리적 지위: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서 어울리기〉 등

순 서

1. 사물의 의회, 이론적 배경 — 왜 사물이 정치적으로 대변되어야 하나?

2. 한국 2025년, 사물의 의회 — 실험은 작동하나?

3. ‘실험’에서 ‘제도’로 — 어떻게 현실 정치로 가나?

사물의 의회, 이론적 배경

왜 사물이 정치적으로 대변되어야 하나?

근대적 세계관의 문제

- 현재 우리가 겪는 문제는 대체로 **인간중심주의,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기원
- 근대문명은 자연을 지배의 대상으로 간주; 그 영향으로 과학과 정치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구조 위에서 작동
- **쉽게 의사결정하는 이득을 얻었지만, 동시에 불안전하게 작동하는 대가를 치루고 있어**; 지구는 거주 불가능한 장소로 변하고 있어

'사유하는 개인(코기토)'에게 독보적 지위를 부여

다른 존재들과 관계를 맺는 일에 소홀해져

과학과 정치의 분리가 불러온 위기(Latour,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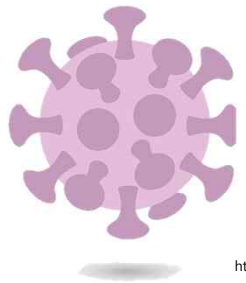
세계	대표/산출	존재론적 위기
1번째 세계	**과학자** /과학적 표상	**-사실의 문제, 설명하는 힘** -현실성을 가졌으나 정치(공적 합의)가 없어
2번째 세계	**선출직 공무원** /정치적 대표성	**-가치의 문제(관심의 문제), 질서를 배열하는 힘** -정치를 가졌으나 단지 "사회적 구성물"에 불과; 첫 번째 의회에 맡겨진 사물의 현실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정당성을 결여

사물을 대변하는 일

인간을 대변하는 일

사실의 문제, 가치의 문제

- 더이상 과학과 정치가 따로 떨어져 일할 수 없는 상황; 가치의 영역(정치)과 사실의 영역(과학)은 별개로 존재할 수 없어
- 이는 우리가 이미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 현실 세계의 문제는 과학적 논쟁과 정치적 논쟁이 뒤섞여 있어
- 예를 들어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과학과 정치의 횡단적 결정이 없다면 현실적 대응을 할 수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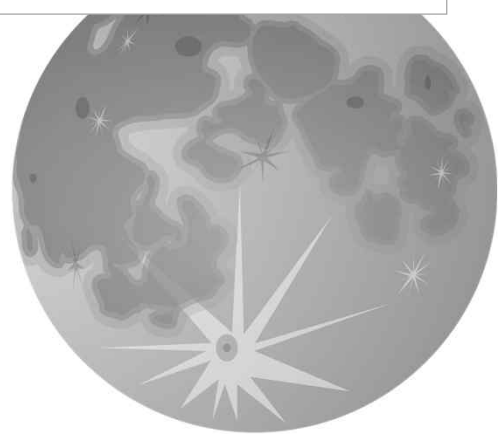


https://pixabay.com

정치 공간에 사물의 자리를…

- 과학철학자 브뤼노 라투르(B. Latour), ‘사물의 의회(Parliament of Things)’ 개념을 제안
- 인간만이 아니라 비인간이 정치 공간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 제도 발명; 이는 과학과 정치를 동시에 다루는 일
- 이자벨 스탱게르스(I. Stengers)도 이 모델의 가치를 인정하고 적극 지지

‘사물’이라는 단어는 원인을 의미하는 라틴어 'res'(이탈리아어로는 Cosa/causa)에서 유래…… 사물의 의회는 ‘원인들의 의회(Parliament of Causes)’라고 불러도 좋을 것!



사물에까지 확장된 민주주의

- 민주주의를 사물에게 확장하는 일은, 과학기술의 역할을 다시 사유하고 그것들을 정치적 차원과 연결하는 것

- 사물의 의회를 창조하는 일은 인간과 비인간이 모두 적절히 대표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

- 세계에 대한 새로운 태도의 탄생을 의미

어떻게 '사물'에 자리를 내어줄 수 있을까?

- 근대적 권력 관계 속에 파묻혀 있는 우리(근대인)가 어떻게 사물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또는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까?

- 초기 '언어-이전(pre-linguistic)'의 인간은 사물에 대한 직접적 인식이 가능했을 것…

- 하지만 우리는 '언어적 전환(linguistic turn)' 이후의 인간; 즉 언어의 매개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비인간도 정보를 발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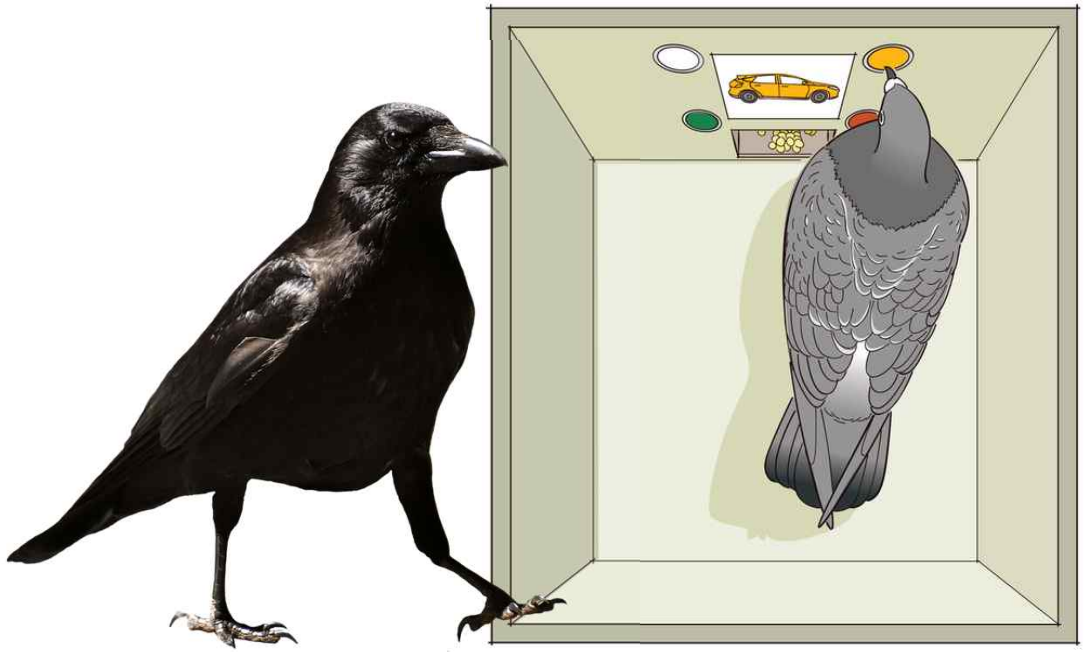
- 언어적 전환의 이득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언어를 넘어 사물들이 다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철학적 시도

- 미셸 세르(M. Serres), 『자연계약(Le Contrat Naturel, 1995)』; '협상의 기술(technologies of negotiation)' 가능성 모색

- 정보는 인간만이 발신하는 것이 아니라 비인간도 발신;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소통 네트워크이며, 그 소통은 인간에 한정되지 않고 비인간에게도 적용

까마귀의 피드백

- 행동주의 과학, 스키너 상자(Skinner Box)를 까마귀에 적용; 그러나 까마귀는 상자를 부숴버려. 연구자들은 실망하여 다시 비둘기로 돌아갔는데, 그것은 나쁜 과학
- 까마귀의 '저항'은, 적용된 기술과 범주가 부적절함을 알려주는 피드백; '좋은 과학'이라면 까마귀의 응답을 고려하여 실험 장치를 다시 생각해야…



https://pixabay.com

https://cvebigaj.medium.com/building-happiness-out-of-slot-machines-9546afa48813

경기중의-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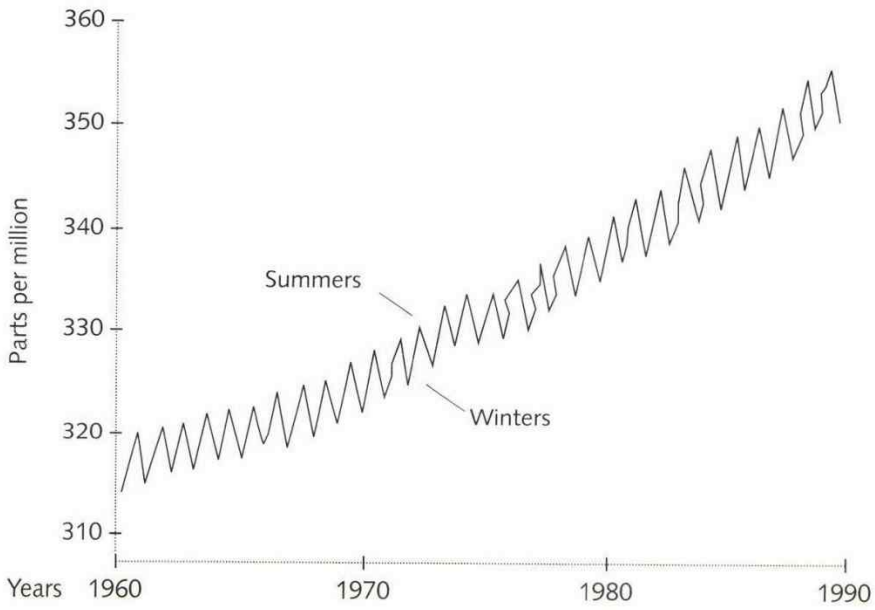
- 공은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 전체가 그 주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심지어 그 공이 공동체를 창조
- “공을 잘 다루는 선수는 공을 따르며 그것을 섬기는 사람이지, 공을 자기 뜻대로 부리는 사람이 아니다… 규칙은 공을 중심으로 쓰이고, 공을 기준으로 정의되며, 우리는 그 법칙에 복종한다”



https://pixabay.com

킬링 곡선의 정치성

- 찰스 킬링(Charles D. Keeling)이 1958년대 부터 하와이에서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 지구의 호흡을 상징
-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마우나로아 관측소 폐쇄 추진(2025. 7. 2일자)
- 그 순간 과학지표에서 정치성이 생성됨



대기중 이산화탄소 데이터;
킬링 곡선이 보여주는 지구의 호흡

사물의 반응을 제도적으로 청취

- 사물은 인간주체에게 반응하고 주체를 변화시켜; 기술은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 과학자와 객체가 서로 질문을 주고받게 해

- 사물의 의회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어; 사물의 반응들을 제도적 방식으로 청취하고 응답할 수 있는 공간



파리 2015년, 협상의 극장

- 2015년 5월 26~31일, 프랑스 낭테르-아만디에 극장, 수백명의 학생과 과학자 예술가

- 협상의 극장(Theater of Negotiations); **정치, 외교, 과학, 교육, 그리고 예술을 아우르는 실험**
- 유엔의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형식; 다만, 현실의 총회와 달리 '비-국가 대표(non-state delegations)' 포함



https://nanterre-amandiers.com/en/evenement/le-theatre-des-negoci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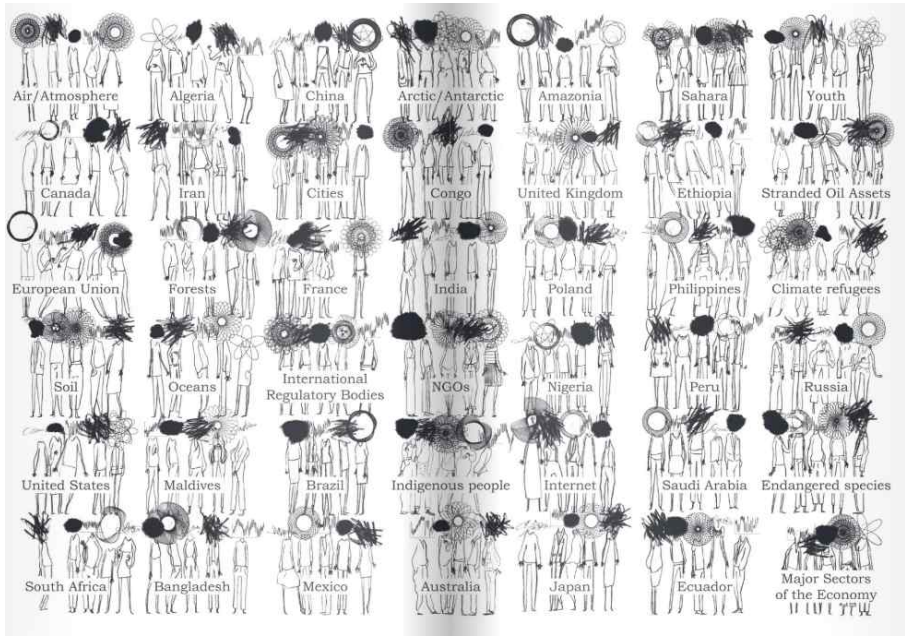
총감독,
로랑스 튜비아나
(Laurence Tubiana)


MAKE IT WORK

대표단 구성

- 42 대표단, 24개의 국가 대표, 18개 비-국가 대표 구성

- 각 대표단은 5개 단위로 구성; (1) 정부 또는 준정부 대표, (2) 경제 행위자, (3) 시민 사회 대표, (4) 과학 지식을 가진 사람, (5) 자유롭게 선택된 행위자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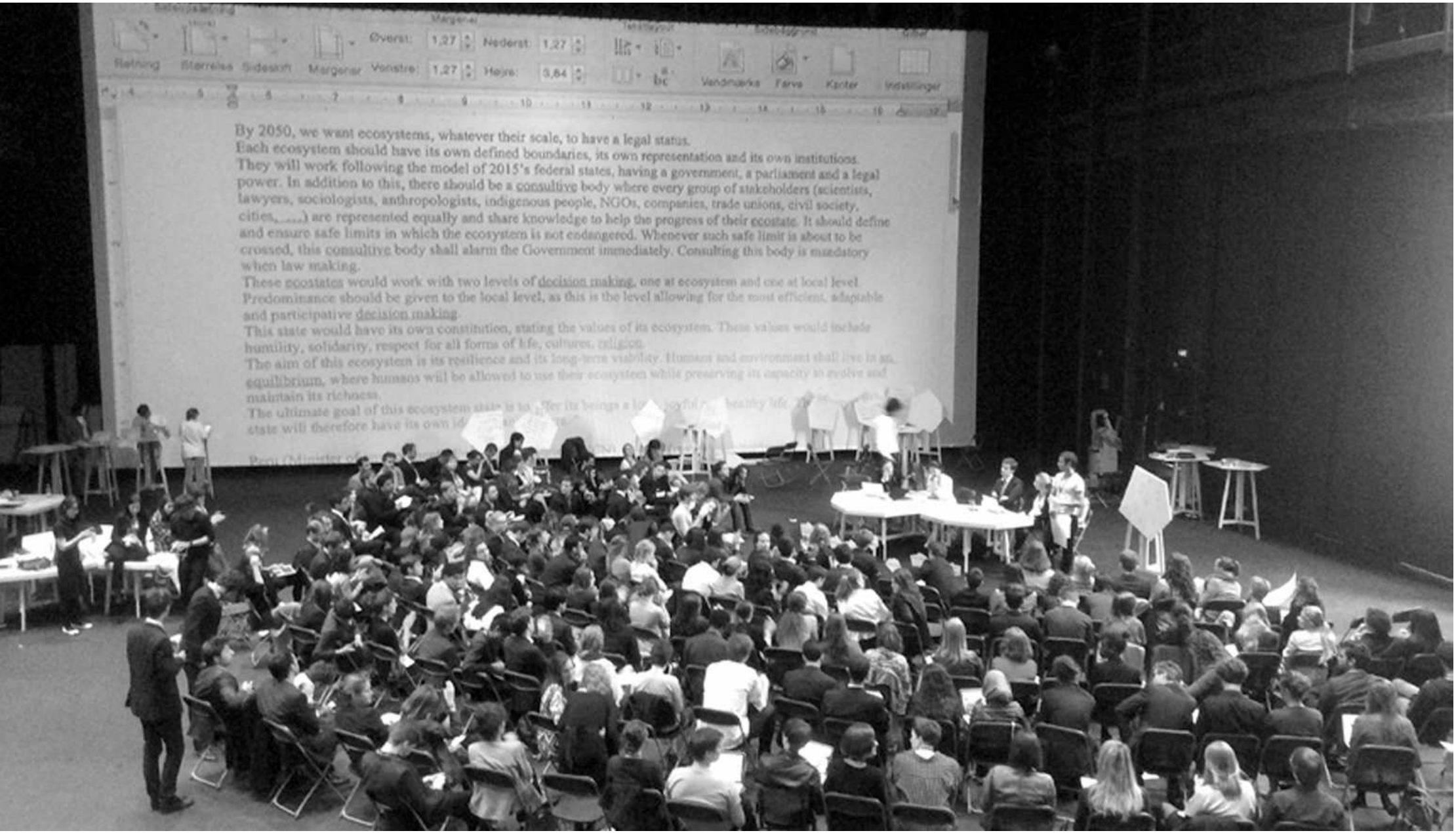
비국가 대표

- 기존 당사자총회는 대부분 민족국가가 참여하므로 그들 사이의 협상은 국가라는 이해관계 토대 안에서 작동
- **국가는 영토를 점유하고 통치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협약은 근본적으로 편향적; **특히 그들은 지구 생태에 관해서 무관심**; "비국가 대표단의 도입이 없었다면 이 계획에 맞서 싸우는 것은 불가능"할 것

- 비국가 대표단(18개)은 공기/대기, 북극/남극, 아마존, 사하라, 도시, 숲, 기후난민, 흙, 대양, 인터넷, 위기생물종, 호수, 청년, 토착민, 기후난민, 주요 경제주체 등

‘영토’에 관한 권리 문제

- 라투르는 비-국가 대표단이 협상단에 포함된다면 민족국가들의 공모에 균열을 줄 수 있다고 생각
- 비국가 대표단의 결정적 역할은 민족국가들이 그동안 누렸던 영토에 관한 권리를 문제삼는 것
- **민족국가의 영토는 사물의 영토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 누구든지 이 협상을 관전함으로써 쉽게 그 사실을 이해; ‘흙’, ‘대기’, ‘대양’이 (자연 밖으로 나와) 인간 정부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동안 절대화되었던 민족국가의 논리는 공격받게 돼


By 2050, we want ecosystems, whatever their scale, to have a legal status.
Each ecosystem should have its own defined boundaries, its own representation and its own institutions.
They will work following the model of 2015's federal states, having a government, a parliament and a legal power. In addition to this, there should be a consultive body where every group of stakeholders (scientists, lawyers, sociologists, anthropologists, indigenous people, NGOs, companies, trade unions, civil society, cities, ...) are represented equally and share knowledge to help the progress of their ecostate. It should define and ensure safe limits in which the ecosystem is not endangered. Whenever such safe limit is about to be crossed, this consultive body shall alarm the Government immediately. Consulting this body is mandatory when law making.
These ecostates would work with two levels of decision making, one at ecosystem and one at local level. Predominance should be given to the local level, as this is the level allowing for the most efficient, adaptable and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This state would have its own constitution, stating the values of its ecosystem. These values would include humility, solidarity, respect for all forms of life, cultures, religion.
The aim of this ecosystem is its resilience and its long-term viability. Humans and environment shall live in an equilibrium, where humans will be allowed to use their ecosystem while preserving its capacity to evolve and maintain its richness.
The ultimate goal of this ecosystem state is to offer its beings a

협상 결과 문서

- 참가자들은 협상 결과를 약 30페이지에 달하는 최종 문서로 정리; (1) 합의된 미래 비전 (2) 공동 해결책 (3) 선언문

- 그 외, 기후난민에 대한 법적 지위 창설, 수입된 상품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 세계 환경 기구와 생태계 거버넌스 시스템 설립 등



https://nanterre-amandiers.com/wp-content/uploads/2020/02/resultats-miw-juin-2015.pdf

학습과 실천의 결합

- 이 실험은 기존 민족국가 중심의 국제협약의 대표성이 편향적이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줘

- 이 과정에서 참가 학생들은 정서적이고 인식적 변화를 경험; 협상의 극장은 학습과 실천을 동시에 구현하는 도전

- 이 실험이 반복적으로 다양한 버전으로 수행된다면 대안적인 대표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 ; 생태계급(ecological class)의 등장

서울 2025, 사물의 의회

이 모델은 작동하나? 어떻게?



10개의 대표단; 인간 그룹 5개(기업가, 노동자, 농민, 사회적 약자, 미래세대), 비인간 그룹 5개(대기, 해양, 숲, 동물, 기술)

- 서울, 2025년 11월 1~2일 사물의 의회 행사 개최
- 예비모임 9월 20일 개최; 예비모임과 본회의 사이, 온라인 공개방 운영
- 참여연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환경분과 등 후원

Designed by 곽다희



『지금 당장 기후 토론』 저자이며, 37년간 지구과학 교사 생활을 했다. https://www.planet03.com

시민과학자의 발의

- 2024년 11월, 김추령 선생(시민과학자)의 발의로 시작
- 김환석 국민대 명예교수, 사물의 의회 조직위원회 구성



photo@ 남종영

이론에서 실천으로의 전환

- 이론이 현실로 구현되는 과정은 난관이 많아; 현실은 국소적이고 맥락적 복잡성이 있어, 그에 따라 관심(가치)의 초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 이론에는 많은 틈이 있어, 집행이 종종 길을 잃어
- 실험 수행자들에게 번역의 권한과 책임이 따라

사물의 대표 찾기

- 사물의 대표단 모집; 6월 17일~7월 31일
- 대표단 후보자 인터뷰 및 선정(80명); 8월
- 예비모임; 9월 20일, 안내책자 배포, 강연, 그룹별 모임
- 그룹 구성; 자원참가자 8명, 조직위 1명/퍼실리테이터 1명 배당(총 10명)
- 온라인 공개방 운영; 9월 20일 ~11월



https://samulparliament.com/

예비모임, 의제 형식 발표

“한국 기후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과제로 요약될 수 있다.”

-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집행 강화
- 국제적 위상 강화 및 협력 확대
-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언

Designed by 곽다희



예비모임, 참가자들의 고민

- “우리는 인간인데, 어떻게?”
- “과학지식 없이 어떻게 비인간을 대변할 수 있을까?”
- “기업가 대표단에는 기업가들이 있나요?”
- “의제가 근본적이지 않다, 법안 개정 정도에 만족하는 것인가?”
- “우리가 법률안 공부를 해야 하나?”
- “자연의 권리… 법은 보통 국가 범위 안에서 작동하는데 이것은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나? 어떻게 연결될 수 있나?”

그룹별 온라인 공개방 활동

- 참가자들에게 본회의까지 1개 요구안을 개발할 과제 부여
- 공개방에서 길고 깊은 침묵, 회의적 태도, 혼선

- 과연 이들은 본회의에 나타날 것인가?

조직위원회, 본회의 절차 논의

- 본회의 절차를 둘러싼 논쟁, 그룹 협상인가? 개별 투표인가?
- 토론 방식, 전체 토론? 그룹별 혼성 토론?
- 대표단의 초점은 전쟁 상태 인식? 공존과 협상?
- 참가자들을 위한 안내, 되기(becoming)의 과정을 지원하는 문제 등



드디어 모인 이 사람들

https://slownews.kr/148303

첫날, “이게 되네!”

- 그룹별 요구안 5개 작성, 전체 회의에서 그룹안 발표, 의견 청취 후 수정안 작업
-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참가자 선희님의 말…… “이게 되네!”

사물의 의회가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것



Designed by 곽다희

둘째날, “이게 뭐라고?”

- 그룹 간 혼성 토론 후 수정 작업, 병합안 작성, 최종 투표
- 참가자들은 자신의 그룹안을 최종안에 올리기 위해 집중적 노력, 병합안 마련을 위한 시간을 요구하기도…
- 참가자들의 열정에 놀라서 조직위 추령님… “이게 뭐라고? (저렇게 열심히 하나)”
- 몰입했다는 것은 이 실험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



@사물의의회

외교관

- 그룹별 '외교관' 선정; 그룹 요구안을 전체 앞에서 공표하고 설명
- 그룹의 요구안을 들고서 다른 그룹 요구안과 협상, 병합안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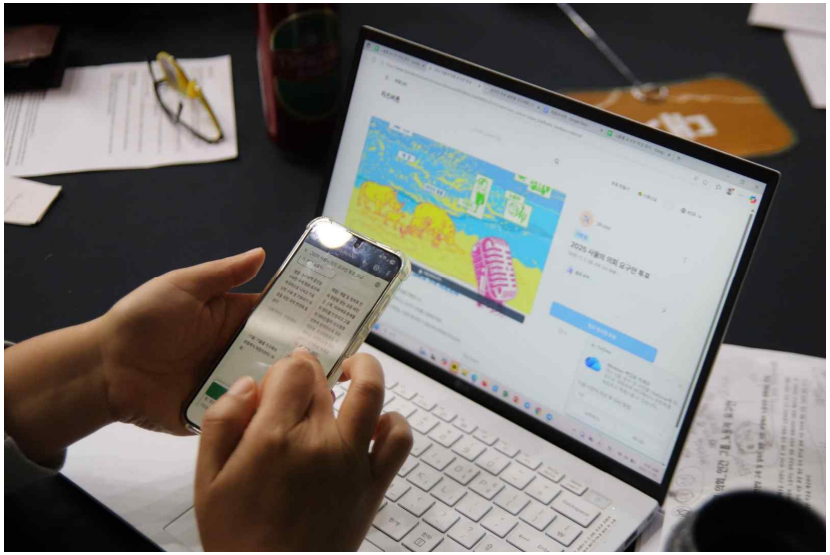




최종안 선정; 개인 투표

- 등록된 36개안 중, 10개 최종 요구안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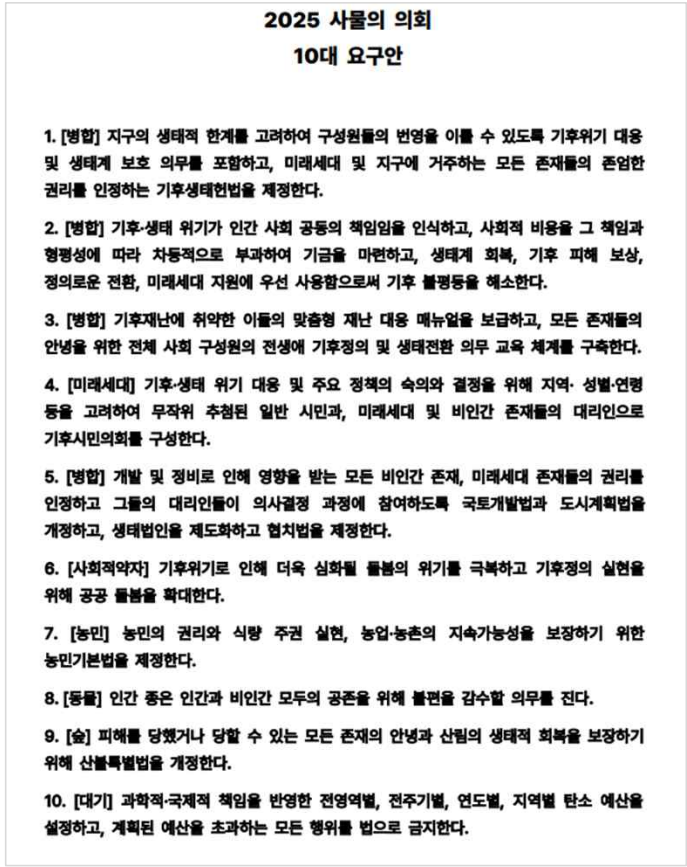




@사물의의회

10대 요구안 선정

-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요구안은 '기후생태헌법 제정 (7.3%)'
- 기후·생태 기금 설치안(6.9%)
- 기후 재난에 취약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재난 대응 매뉴얼 보급' 및 '기후정의 및 생태 전환을 담은 의무 교육 체계 구안'(6.0%)
- 기후·생태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후시민의회 설치안'(5.7%)등 선정



2025 사물의 의회

10대 요구안

1. [병합]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고려하여 구성원들의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계 보호 의무를 포함하고, 미래세대 및 지구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들의 존엄한 권리를 인정하는 기후생태헌법을 제정한다.

2. [병합] 기후·생태 위기가 인간 사회 공동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사회적 비용을 그 책임과 형평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생태계 회복, 기후 피해 보상, 정의로운 전환, 미래세대 지원에 우선 사용함으로써 기후 불평등을 해소한다.

3. [병합] 기후재난에 취약한 이들의 맞춤형 재난 대응 매뉴얼을 보급하고, 모든 존재들의 안녕을 위한 전체 사회 구성원의 전생애 기후정의 및 생태전환 의무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4. [미래세대] 기후·생태 위기 대응 및 주요 정책의 숙의와 결정을 위해 지역· 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첨된 일반 시민과, 미래세대 및 비인간 존재들의 대리인으로 기후시민의회를 구성한다.

5. [병합] 개발 및 정비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비인간 존재, 미래세대 존재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의 대리인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국토개발법과 도시계획법을 개정하고, 생태법인을 제도화하고 협치법을 제정한다.

6. [사회적약자] 기후위기로 인해 더욱 심화될 물봄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공공 물봄을 확대한다.

7. [농민] 농민의 권리와 식량 주권 실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농민기본법을 제정한다.

8. [동물] 인간 종은 인간과 비인간 모두의 공존을 위해 불편을 감수할 의무를 진다.

9. [숲] 피해를 당했거나 당할 수 있는 모든 존재의 안녕과 산림의 생태적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산불특별법을 개정한다.

10. [대기] 과학적·국제적 책임을 반영한 전영역별, 전주기별, 연도별, 지역별 탄소 예산을 설정하고, 계획된 예산을 초과하는 모든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다.

https://vjqshkehfgkipvcwceag.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archive-pdfs/1762345998691.pdf

그 외 26개안

- [노동자] 모든 인간과 비인간은 시혜적인 지원 대상이 아니라 지구에 상호의존적으로 거주하는 동료이자 생태적이고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이며, 노동자는 작업장에서 노동자, 지역민, 비인간 등 다양한 주체가 받는 생태적 영향을 **고려해 생태파업을 행할 권리가 있다**

- [대기] **기후환경대기 관련 소송의 판결문을** 가감없이 완전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해양] **공해를 지구 구성원의 "공동 유산"으로 인정하고**, 바다의 소유와 보존을 넘어선 '해양 정의'를 실현한다.

투표결과보다 더 흥미로운…

- 그룹내 토의, 참가자들의 자율성 높았고 상호작용적 변화도 관찰할 수 있어
- 비인간 그룹의 대변자 되기 과정; '집합적 사유체'로서 변신 가능성
- 추가적인 경험적 발견; 데이터 문제 등

숲, 이름을 바꾼 그룹

-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고치다!
- ‘산림’에서 ‘숲’으로 개명; 도시의 나무 등 더 넓게 대표하기 위한 노력
- 숲은 ‘나무가 있는 토지’로 정의; 땅의 이해도 함께 대변할 수 있는 명칭
-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규정



@사물의의회



기술의 특별한 사정

- 기술을 지구족의 관점에서 재정의한다.
- 지구족의 관점에서 생태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인공지능기본법의 목적과 용어정의를 수정하고 조항을 추가하여 전면 개정한다.
- 기술 개발 및 운영 주체는 기술의 기획, 개발, 생산, 운영,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해당 기술과 인간 및 비인간 존재와의 상호영향의 관계망을 의무적으로 문서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한다.

기술을 대변한다니….
어떻게?

Earthbound, earthling

기술의 특성, 인간과 비인간 사이 관계의 매개자; 기술이 가진 특성이 넓게 연결되어 있어

그 자체로 (다른 그룹의 이해가 포함되어 있어) 병합안의 성격

대기, 더 현실적이게 만들려는 구성의 장소

- 대기그룹 참가자, 대기 재판소……..“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더 어떻게?……사회적으로 좀 더 수용 가능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 데이터 및 사건 아카이브, 환경 재판소, 환경 옴부즈만 등……참가들 중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의견과 정보가 결합하면서……새로운 주장 구성… 환경 판례 (공개) 아카이브 체계
- “대기 입장에서는 자기를 갖고 뭔가 법원에서 판단을 했는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알 수가 없다”
- 생태계급성이 데이터 권리와 관련 있음을 보여줘

농민, 새로운 위치 찾기의 어려움

- 농민 운동가들 다수 참여, 현실적 상황을 잘 이해

- 현실의 격차를 많이 겪다보니 이미 현실 주장이 강하게 존재 ; 기존 주장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함; 대표성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를 드러냄

- 자연(비인간)이 포함된 코스모스(공통세계)로 진입하지 못했다는 평가. 자연의 주장을 넣어서 농민 주장을 만들 수 있다면 동맹을 넓히는 효과가 있어 농민 주장이 더 강력해질 수 있음

노동자, 비인간을 동맹으로 만들기

- 생태파업권 주장; 비인간 행위자 입장에서 작업중지권을 선포 ; 생태적 의미를 환기하고….저항권으로 사용가능…. 노동을 재의미화 계기

- “오리 작업장이나 노동 환경에서 어떤 동물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동물의 노동을 우리가 지나치게 착취했다고 노동가들이 판단을 하면은 그걸 계기로 그러니까 어떤 동물의 피해를 막으라는 이유로도 사업을 발동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기는 더 자동 확장이 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 인간중심적으로 자연을 착취했지만, 인간 범위에서도 충분한 복지가 안되는 현실을 드러내는 존재들; 자연 착취와 인간 불평등는 동기화 현상

- ‘사회적 약자’라는 용어 정의의 문제 ; ……“사회적 약자라는 게 여러 이슈가 겹치는 사람들이라는 거가 좀 드러나면 좋을 것 같아요.(1차 토론) ”; “이게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는 걸 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숲, 이선희).”; “우리가 사회적 약자 그룹의 의견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게 약간 사회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기술, 황미정).”

기업가, ……어떡하실 겁니까?

- 기업가그룹; (탄소배출) 금지하면 금지 당하면 그 다음 날짜로 노동자들 해고할 겁니다. 어떡하실 겁니까?
- 대기그룹; 화석연료를 쓰지 말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UN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가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10년에 현재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는 과잉으로 쓰고 있는 것들을 빨리 줄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뒷부분 가서는 천천히 줄이거든요
- 기업가그룹; 100% 동의하는데 기업가 입장에서 고용의 유지와 기업의 생존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 대기그룹; 과학적 국제적 책임을 반영한 전 영역 전주기 연도별 지역별 탄소 예산을 설정하고 계획된 예산을 초과하는 행위를 모든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한다. 이렇게 하면 조금 괜찮을까요? … 끄덕끄덕 하셨어요 아싸 기업을 설득했어!

스스로 생산한 데이터

- 생태계급의 관점에서 세계(사물)에 대한 기록이 필요; 사물의 의회는 새로운 데이터 생산지 중 하나

- 본회의 마지막 절차, 투표에서 참가자 '본인확인 해야 해요!'라고 주장; **자신이 생산할 데이터에 대한 태도**

데이터 신뢰성을 높이려는 애착

참가자 피드백

- 참가자들은
  - 주어진 시간 안에서 **토론·협상이 의미 있게 진행**,
  - **자신의 의견을 어느 정도 표출할 수 있었다**고 느끼며,
  - 형식 자체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 경험**을 보고
- 자유응답을 보면,
  - “시간이 너무 짧았다”
  - “더 많은 숙의가 필요하다”
  -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가 더 필요하다”



@사물의의회

참여 이후, 생각의 변화

- 비인간 존재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 상승
- 인간 중심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자각
- 정책·법제”를 넘어, 관계망·시간 스케일을 넓게 고려하게 되었다
-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 나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 실험은 어떻게 현실 정치가 되나?

‘실험’에서 ‘제도’로

실험은 어떻게 제도가 되나?

- 정치는 말로 만들어지는 원(**圓**)……(라투르, 2023); 말은 발화하자마자 사라지는데 그런 말로 원을 만들려면…

- 말이 계속 생산되어야 하고, 그 말을 담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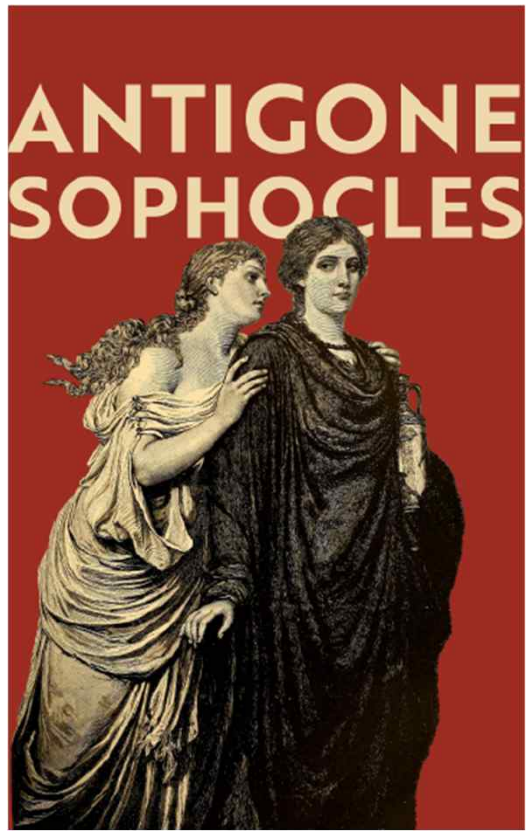
- (1) 사물의 의회 지위 (2) 대표의 질 (3) 절차적 정당성 문제

사물의 의회의 지위

- 사물의 의회는 인간의회와 비교하여 어떤 지위에 놓이나?
- 자연법(가이아) 소환 ; 인간법(국가)의 성찰
- 상식(common sense) 회복 ; 양식(cogito, good sense) 의존 조정
- 공통 세계(common world) 구성; '절대법칙, 절대권력' 포기

안티고네 원리

- 안티고네는 왕의 명령(실정법)을 어기고 양심(자연법)에 따르다 처벌받아…
- “제가 보기에 이것을 명하신 이는 제우스가 아니며, 하계의 신들과 함께 사시는 정의의 여신께서도 인간들에게 그와 같은 법은 정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당신의 포고가 그만큼 강력하다고 생각지도 않아요.”
- 자연법(신의법)과 인간의 법(국가권력)의 충돌



대표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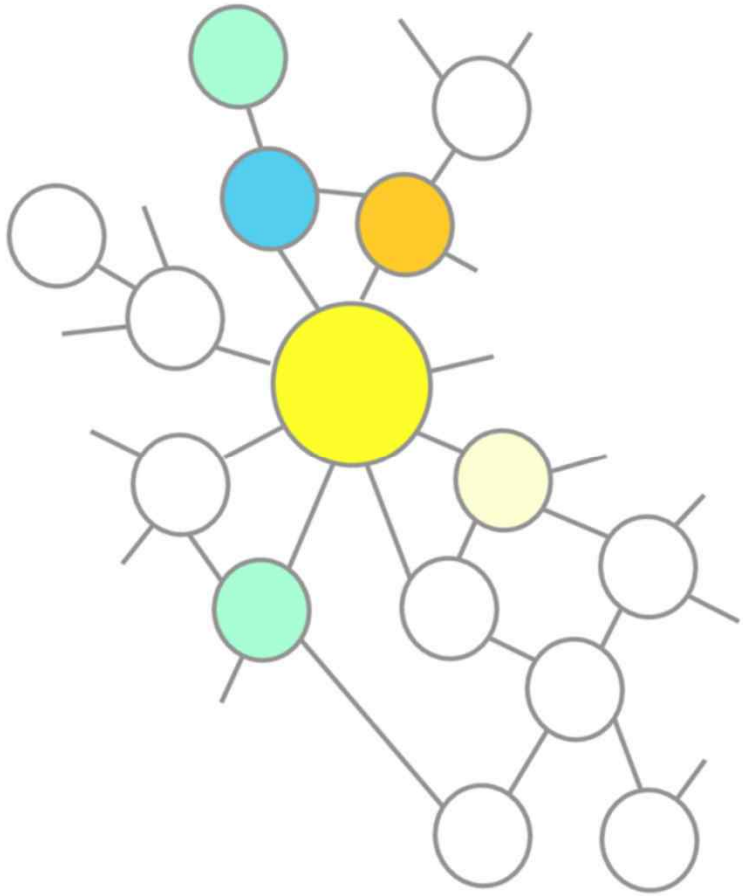
- 예비모임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깊은 의심에 싸여…… ‘나는 인간인데 어떻게 사물을 대변할 수 있나?’ 이런 걱정은 다시 ‘그 대변자의 주장이 사물의 이해관계를 잘 대변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라는 질문과 연결
- 이것은 사물의 의회 모델이 진정한 정치 제도로 승인될 수 있을지를 가르는 기준
- 참가자들도 이 문제를 언급, 대표의 자격을 갖출 시간과 방법, 지속성을 언급

- 생태적 협상에서 의심받는 것은 더 이상 '대표의 원리(principle of representation)'가 아니라, '대표의 질(quality of representation)'이다(Latour, 2017)

- 사물의 의회에 출두한 대변자는 언제나 이런 질문에 직면할 것



- 영토-지도 그리기(Latour, 2017: 242); 한 행위자의 영토는 그 행위자가 맞닥뜨리는 일련의 다른 행위자들의 관계망; 이 영토를 기준으로 협상



절차적 정당성

- 대표단 선정 방법의 정당성; 누가 그 사물을 대표하나?
- 협상 방식의 정당성; 시간과 비용의 제한; 어떻게 논의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나?
- 그러면 어떻게? 지속적인 다수의 실험과 경험을 통해 절차를 발명(발견)

사물의 의회 모델의 잠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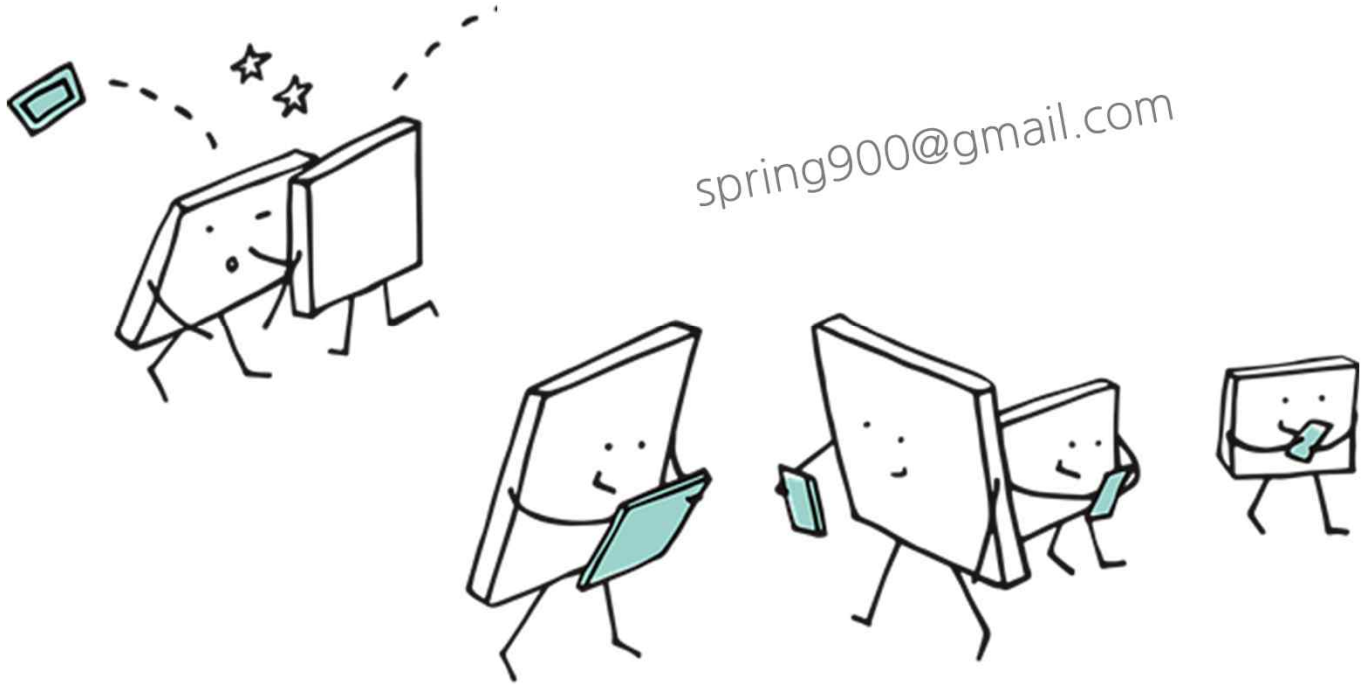
- 비인간의 권리는 법적 풍경과 일상적인 어휘의 일부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 비인간 권리의 이러한 급증은 인간 권리의 미래에 대한 점증하는 불확실성과 동시에 발생
- 사물의 의회 모델은 대중적 흡인력이 있어; 난이도가 높은 참가조건을 뚫고 다수 사람들이 참가를 희망
- 사람들은 기후문제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실천하고 싶어해, 그런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 사물의 의회는 이 문제를 해소할 통로로 부상

참고문헌

- Latour, B. *Facing Gaia: Eight Lectures on the New Climatic Regime*, Polity, 2017.
- Latour, B. *Politics of Nature: How to Bring the Sciences into Democracy*, trans. by Catherin Porter,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 브뤼노 라투르, “현실정치(Realpolitik)에서 물정치(Dingpolitik)로: 혹은 어떻게 사물을 공공적인 것으로 만드는가?”, 《인간·사물·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홍성욱 (편역), 서울: 이음, pp. 259-304. 2010.
- 브뤼노 라투르, 『존재양식의 탐구: 근대인의 인류학』, 황장진 옮김 사월의책. 2023.
- Stengers, Isabelle., *Invention of Modern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0[1993].
- Simons, Massimiliano, “The Parliament of Things and the Anthropocene: How to Listen to ‘Quasi-Objects’”, *Techné: Research in Philosophy and Technology*, 21:2-3: pp. 1-25. 2017.
- Alvarez-Nakagawa, Alexis & Douzinas, Costas(ed.), 2024. Non-Human Rights : Critical Perspectives, Edward Elgar: Cheltenham, UK; Northampton, MA, USA.

참고 웹사이트

- 사물의 의회, https://theparliamentofthings.org
- 파리 2015 협상의 극장, https://nanterre-amandiers.com/en/evenement/le-theatre-des-negociations/
- 북해 대사관, https://www.embassyofthenorthsea.com/
- 세계 강의 회의(World Parliament of Rivers), https://www.environmentandsociety.org/mml/world-parliament-rivers
- 스스로 소유한 나무(The Tree that Owns Itself), https://en.wikipedia.org/wiki/Tree_That_Owns_Itself
- 염소 되기(Becoming a Goat), https://www.thomasthwaites.com/a-holiday-from-being-human-goatman/
- 한국 2025 사물의 의회, https://www.samulparliament.com/info



spring900@gmail.com